



## 영성과 사교육

김지미

사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를 대충 결정하는 사람 봤어요?”

1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 세미나실. 일주일에 한 번인 성경공부 모임이 끝나자 주부들의 대화가 교육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날은 자녀들이 새 학기에 다니는 학원에 대한 정보가 화두입니다. 대치동 엄마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명 학원이나 인기 강사로 소문났더라도 무작정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시 경험이 많고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엄마 중에는 학원과 강사를 찍어주는 베테랑도 있습니다. ‘돼지엄마’라고 불리는데, 엄마 돼지가 새끼 데리고 다니듯 초보 엄마들을 이끕니다. 하지만 돼지엄마의 ‘간택’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00명 가량인 블로그 ‘대치동시크리트’의 운영자 이경희(48)씨도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엄마들이 모두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서인지 친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대치동의 새 학년은 학원 설명회가 열리는 그 전해 말 시작된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팀을 짜 설명회를 순회하고, 방과후 학교 강사 평판까지 조사합니다. 하지만 자조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부와 학교가 믿음직스럽다면요.”<sup>1)</sup>

### 거부할 수 없는 사교육?

현재 사교육 없이 한국에서 교육을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2010년을 기준으로 사교육 시장은 20조 9000억원<sup>2)</sup> 가량의 규모로 같은 해 정부 교육예산이 37조8629억원<sup>3)</sup>인 것을 감안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수능만점을 받은 학생의 인터뷰나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의 수석합격자들이 말하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 않았습니다.”

1) “스타강사라고 우리 애 잘 가르칠까? ‘돼지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윤석만, 중앙일보 2011.04.05

2) 한국경제매거진 제803호 2011.04.27

한국 사교육 시장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는 통계치를 내는 기관과 사교육 정의의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약 40조 4313억원으로 추정한다.(이철선 연구위원, ‘사교육 시장과 대책’ e파이낸셜 2010.05.14)

3) 2010년 교육통계 연보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와 같은 인터뷰와는 달리, 일반의 학생과 학부모 입장으로 사교육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 것인가, 또한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공교육 對 사교육

일반적으로 공교육(公教育, public education)이라 칭할 때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로 학교와 이와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sup>4)</sup>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교육 기관은 1886년 근대 신교육을 위해 설립된 육영공원(育英公院)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육영공원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일본과 중국을 돌아보고 1883년 미국에 보빙사(報聘使)로 갔다가 돌아온 민영익(閔泳翊)을 비롯하여 개화파인 홍영식(洪英植), 서광범(徐光範), 변수(邊燾) 등이 국가 근대화를 위해서 근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갑신정변 등 국내의 정치적 소요로 미루어 오다가, 미국에서 헐버트(H. B. Hulbert)·길모어(G. W. Gilmore)·번커(D. A. Bunker) 등 세 명의 교사가 움으로써 1886년 9월 23일에 개교하였다. 학교 이름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은 ‘(젊은) 영재를 기르는 공립학교’라는 의미이다.

이후 이화학당(1886), 배제학당(1885), 경신학교(1886) 등과 같은 기독교계 사립학교들과 한성 사범학교(1895)와 같은 정부가 설립한 관학기관들이 설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초·중·고등·대학교 포함 12,000여개의 공교육 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5)</sup>.

사교육(社教育, private education)은 공교육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교육 이외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칭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가 있다. 교습소는 강습자 개인이 자신의 집이나 기타 건물에서 학원이 아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sup>6)</sup> 학원에 비해 여러 행정 규제에 자유로운 편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단일 과목만 강습할 수 있다. 학원은 운영에 관련한 시설 기준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갖춘 후 해당 교육청에 등록을 통해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해당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교습소는 단순히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sup>7)</sup>. 개인 과외는 주로 교습신고를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4) 공교육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으로 보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 넓은 의미로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킨다. 보통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으로 쓰인다. (네이버 백과사전)

5) 2010년 교육통계 연보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

사교육 열풍의 원조라 볼 수 있는 강남의 사교육에 대한 최근 조선일보에 실린 한 기사 내용이 다.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엿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정부의 강남개발 정책이 시작되면서 강북의 명문 고교들이 대거 강남으로 이전됐다. 강북 중산층의 강남지역 유입으로 인해 그들의 교육열도 고스란히 강남으로 옮겨왔다. 지금의 강남, 그 중에서도 대치동의 사교육 열풍을 주도했던 핵심인물은 바로 학부모들이었다. 이성곤 아이비학원장은 "1994년 1월부터 대치동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한샘, 한태희씨 등의 강남 사교육을 이끈 1세대 스타강사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원장은 "당시 1세대 스타강사들은 강북에서 이주한 중산층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강남에 자리잡게 됐다. 초창기에는 소개를 통해 팀수업이나 과외를 진행하는 형태였으며 점차 수학, 영어, 국어, 논술 등 과목별 전문학원이 주를 이루게 됐다. 처음부터 강남 출신의 스타강사들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sup>8)</sup>

현재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개인 및 그룹 과외부터 중소형 보습, 입시학원과 해외투자 유치와 주식 상장으로 기업화되고 있는 대형학원<sup>9)</sup>, 학습지 시장, 예체능 관련 교습소, 온라인 강의 시장 등 학습자 개인의 수요 욕구와 교육정책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대학 기초교양과목 관련 온라인 학습 사이트와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준비를 위한 각종 온라인 강의 개설까지 가세해 사교육 시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화, 기업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 사교육의 부작용

사교육은 이용하기에 따라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개인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단, 지속적인 비용 부담과 결과 위주의 단기적인 학습효과만을 노리기 때문에 왜곡된 교육을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무턱대고 사용하기만도 어려운 양날의 칼이 되기 쉽다. 그것도 함부로 잘못 다루었다간 베이기 쉽고, 어떠한 칼을 선택해야 할지 매우 까다로운 칼이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

#### (1)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조기교육과 영재교육의 열풍과 기업형 학원의 전략적인 마케팅, 한국 교육정책의 잦은 변화와 개혁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취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으로 과거와는 달리 사교육에 노출되는 학습자의 연령이 매우 낮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의 도움 없이 공부하는 경험의 부족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

---

고하여야 한다.

8) “강남 엄마’ 교육열·인강 열풍 타고 학원이 떴다” 안아름 조선일보 2011.04.26

9) 메가 스테디, YBM시사닷컴, 디지털 대성, 웅진싱크빅, 대교 등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코스닥에 상장된 상태.  
www.hanaif.re.kr 하나금융그룹 하나산업정보 제41호 2008.06.20

끼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9년 전국 165개 고교 1만1341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근 공개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교생의 주당 독립적인 공부시간은 ‘5시간 미만’이 41.2%, ‘안 함’이 23.2%나 됐다.<sup>10)</sup>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의 부족은 당연히 자유롭게 독서하는 시간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이는 인간이 자유의지와 창의력을 통해 전인적으로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랑, 분노, 고통, 인내, 증오, 질투, 기쁨과 같은 인격적 특성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들의 구속자(사41:14), 아버지(말1:6), 이스라엘의 남편(호1-3장), 다정하게 돌보시는 자(렘14:17; 호11:8)가 되신다.”<sup>11)</sup> 구약에 나오는 모세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처럼, 다윗왕처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주입식 암기 교육과 사교육에 맡겨 길러진 인간은 알맞지 않다.

### (2) 고효율 그러나 고비용, 학력 지역 계층 심화

사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법론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일부가 상당부문 공교육에 비해 학습 수요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사교육 효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교육은 교양 및 인성 교육 뿐만 아니라 교사의 성의 및 자질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이 때문에 출산율 저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장에 대한 우호성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 통계청에 의한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1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0%에서 2007년 21.5%까지 상승하였다. 월평균 교육비는 1995년 10만원 수준에서 2007년 4배 증가한 48만 8천원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다고 해도 상당한 차이로 자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녀 1인당 투입되는 사교육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읍면 지역의 2, 3배에 달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 (3) 지식중심 성공지향 인본주의 교육

한국 사회의 교육이 지식 중심, 점수 중심의 성공 지향적이라는 것은 공교육 사교육간의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고효율 고비용 구조인 것은 감안할 때 이는 분명 사교육 분야에서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사회의 요구는 조금 다를지 모르나 아직까지 공교육(내지 교육)의 목적이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고 본다. 다시 말해, 인성이라는 가치가 아직까지 공교육의 미덕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사교육은 다분히 ‘고득점’ 이나 ‘입시경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단순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사교육인 것이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10) “한국 고교생 혼자선 공부 못해”, 헤럴드 경제. 2011.05.09

11) 아가페 성경사전 p.1661

12) www.hanaif.re.kr 하나금융그룹 하나산업정보 제41호 2008.06.20

1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도 사교육 시장의 상승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www.hanaif.re.kr 하나금융그룹 하나산업정보 제41호 2008.06.20

않는 태도는 토익시험 대리시험이나, 학원 강사의 특목고 입시 문제지나 학력평가 문제지, SAT시험 문제와 같은 각종 문제지 유출 등의 입시 부정 사례에서 이미 그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짧은 시간 내에 투자한 고비용의 액수 만큼의 성과를 얻기 위해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비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고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바로 사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다. 이러한 방식 속에 오랜 시간 길들여지다 보면 기독교인 학부모와 학생들일지라도 인본주의 사교육의 구조적인 부조리 속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워 보인다. 오직 성공을 위해 경쟁을 위해 사교육으로만 훈련된 아이들에게 매서운 세상 환파 속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모습일 것이다.

#### (4)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걸까?

양질의 사교육으로 내 아이가 드디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하자. 과연 사교육의 최종 목적지인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모두 성공한 것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 일단 합격만 하고 나면 스펙은 확보했으니 나머지는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일까?

저는 3학년, 4학년 때 캠퍼스 선교사를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천 학생들은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지만 정작 그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교육이 인본주의에 기반한 교육이고 보면, 어쩌면 그 인본주의 교육 체제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 내면부터 철저히 인본주의화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해도 인본주의화된 사고방식은 쉽사리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갑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 준비와 리포트 제출을 위해 예배를 빠지는 학생들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가진 가지만 문화생활의 하나로 교회를 찾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데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요술 램프이지, 나의 전부를 드릴만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sup>14)</sup>

위 내용은 '다니엘 학습법'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김동환 목사의 경험담이다. 이 글은 성공을 위해 공부만 강조하다가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동환 목사는 진정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길 원한다면 단순히 공부의 필요성과 성공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학생들이 왜 목숨 걸고 공부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많은 학부모들이 비싼 과외나 공부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한 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고액과외나 양질의 학원교육보다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다. 어른에게도 힘든 냉혈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아이들에

14) 김동환, "김동환의 다니엘 학습법" p.102-103, 고즈윈 (1997)

게 부모의 따뜻한 격려 한 마디가 큰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사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선생이 가르치더라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물질적 성공 그리고 행복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하는 것, 소위 말해 먹고 살만하게, 풍족하게 사는 것은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속초에서 지난 몇 년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와 같은 답이 대다수였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이런 풍조가 심화될 거라는 것에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돈만으로도 행복하다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돈과 명성을 한꺼번에 얻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행복하지 못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다. 또한 위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권력자들이나, 더 많이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자들이 행복하게만 살았다는 이야기는 고급동서를 막론하고 듣기가 어렵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sup>15)</sup>이기 때문이다. 좋은 학벌과 성적이 곧 사회에서의 물질적인 성공이며, 물질적인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우리 삶의 진정한 본질적인 행복은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나 사교육이 좋은 학벌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그것도 매우 기술적인 부분만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교육을 맹신하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을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 공부 잘 하는 비법?

어떤 식으로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방식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관계없이 ‘과연 인간이란 교육으로 계몽될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에게 발전과 긍정적 변화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개인의 능력과 환경차이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 학생의 발전과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으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반복되는 학습에도 변하지 않는 실력에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고득점을 위한 스킬위주의 매우 지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교육의 경우 이러한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공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자신의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부모와 이야기 하다보면 아이의 문제는 결국 아이의 가족과 부모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의 문제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가 사교육을 통해 단지 공부만을 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의 지극히 일부분인 공부는 사교육을 통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단지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 아이 다시 말해 그 아이의 부모, 그리고 그 아이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15) Deuteronomy 8:3(NKJV) "So, He humbled you, allowed you to hunger, and fed you with manna which you did not know nor did your fathers know, that He might make you know that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man lives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the LORD."

정신과 전문의인 김진 박사는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무엇보다 먼저 얘기 되어져야 하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자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미 좋은 사람이라면 그 아이의 양육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시일 내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좋은 양육을 위해 아이를 낳은 후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한다. 좋은 엄마 아래에서 좋은 아이, 잘 양육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 박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어떤 지식을 알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어떤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당신께서 먼저 좋은 인격자가 되게 되면 좋은 양육은 벌써 태반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다.<sup>16)</sup> 좋은 인격의 형성이 이러하듯 공부를 잘 하기 위한 바탕 역시 엄마를 통해서 나온다. 물론 공부를 잘했던 부모 아래에서만 공부 잘 하는 아이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의 모든 것이 엄마(내지 그 가정)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학부모와 상담을 하게 되면 아이가 엄마의 말투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경우를 매우 많이 보게 된다. 웬지 모를 아이의 불안감의 원인을 캐다 보면 엄마 스스로가 아이나 교육 현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거나, 유난히 주변의 친구들과 상황에 대해 이기적인 아이도 그 엄마가 아이보다 더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포악(?)을 떠는 경우가 많았다.

#### 사교육은 필요악인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사교육이라는 지극히 극단적인 방향의 스킬 위주의 교육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다만 같은 사교육이라도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사교육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사교육이 물질적인 성공을 보장해주는 지름길이나 이를 위한 마스터 키로만 여겨지는 한 그 부작용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교육은 정말 이지 도구일 뿐이다. 도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한 사용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똑같은 칼도 강도가 사용하느냐, 숙련된 요리사가 사용하느냐, 다섯 살짜리 꼬마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며, 그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고 사용하는 것이 사교육을 제대로 대하는 방법일 것이다.

16) 김진,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p.76 생명의 말씀사 (2006)